



2014년 에너지수요 전망 및 시사점¹⁾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thkim@keei.re.kr)

1. 서론

지난해 에너지소비는 성장세와 소비구조 모두 과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대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6%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해오던 석유화학산업의 납사 수요가 지난해에 크게 둔화되고 제철산업의 유연탄 수요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3.3%로 경제성장률 2.9%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따른 원료용 수요와 전력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3년 에너지소비 동향을 살펴본 후, 2014년 에너지수요 전망을 제시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 전망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2013년 에너지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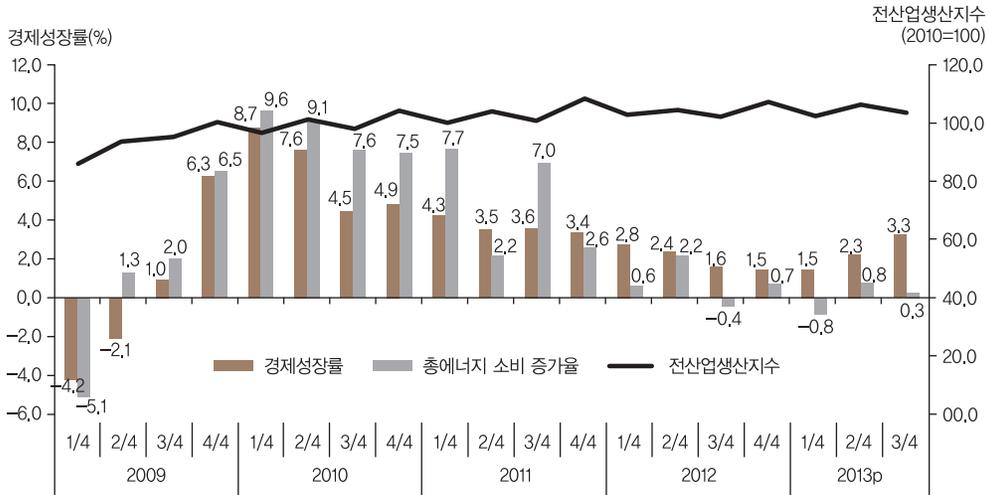
2013년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에 비해 소폭(0.3%) 증가한 279.5백만 TOE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수준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 지속됨에 따른 결과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 3.7%에서 2012년에 2.0%로 하락하고 2013년에는 소폭 상승한 2.8% 기록하였다. 한편, 원료용 에너지(비에너지유, 원료탄)를 제외할 경우 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너지에서 원료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달한다.

에너지원별로는 살펴보면, 석유의 경우 원료용 납사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난방용 석유제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함

1) 본고는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2013.12)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임.



[그림 1] 최근 경제 및 총에너지 소비 동향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 따라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용 석유소비는 승용차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석탄의 경우 발전용은 소폭(2.4%) 증가한 반면, 산업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연탄 소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철용은 조강생산 설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탄은 산업용 및 가정·산업용 모두 증가하지만, 발전용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2% 내외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가스(LNG)의 경우 케이블 문제로 일부 원자력 발전 설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발전용 LNG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바이 기준 국제 원유가가 100 달러/배럴 이상 유지되면서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도시가스용 수요도 증가하면서 LNG 소비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용 전력소비는 산업 생산활동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전력수요 관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해오던 산업용 소비도 포함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는 전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자력은 일부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의 영향으로 크게(6.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 2014년 에너지수요 전망

가. 전망전제



본 에너지수요전망을 위한 경제성장률 전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DI 경제전망' (2013.11)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3.7%로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날씨에 의한 에너지수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s, CDD), 난

방도일(Heating Degree Days, HDD) 등을 이용한다. 전망에 활용된 기온변수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기온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전망 기간 중에는 평년 기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을 전망의 전

〈표 1〉 경제성장률 전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e		
	연간	상반기p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0	1.9	3.6	2.8	3.9	3.5	3.7

주: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3.11

〈표 2〉 기온변수 전제

구분	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5	1.0	5.5	12.2	18.3	22.6	24.6	25.9	21.5	15.3	8.0	-0.5
냉방도일 난방도일	0	0	0	3	39	138	206	246	111	10	0	0
난방도일 (HDD)	634	482	389	177	29	1	0	0	6	92	302	571

주: 냉방(난방)도일은 일평균 기온이 기준치(18℃) 보다 높을(낮을) 경우, 일평균 기온과 기준치와의 차이를 의미함. 월별 냉·난방도일은 해당 월의 일별 도일을 합한 것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3.12

〈표 3〉 국제 원유가 전망

(단위: \$/배럴)

시나리오	2013년 연평균	2014년e				
		1/4	2/4	3/4	4/4	연평균
기준유가	105.32	103.82	102.00	104.02	101.99	102.9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 석유시황과 유가 분석, 2013.12



제로 사용한다. 2014년 국제유가 전망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2013.12)에서 전망한 기준유가를 이용하였으며, 국제유가는 지난해보다 2.2% 하락한 102.96\$/배럴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망된 국제유가는 국내 석유제품과 도시가스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가격모형이 이용된다.

나. 에너지원별 수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에너지 수요가 전년대비 2.5% 증가한 286.5백만 TOE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부문의 전력(4.2%)과 도시가스(7.1%)가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이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경제성장률(3.7%)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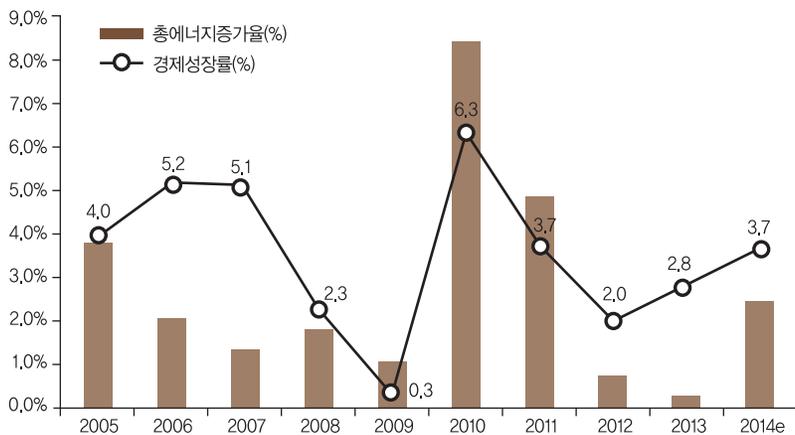
주요 에너지지표를 살펴보면, 에너지원단위(TOE/

백만 원)가 2012년에 0.252에서 2013년에 0.246, 2014년에 0.243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인당 에너지소비비는 2012년에 5.55 TOE에서 2013년에 5.63 TOE, 2014년에 5.73 TOE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1년 기준 OECD 평균 4.29, 일본 3.61, 미국 7.03).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탄수요는 금년에 소폭(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호전과 신규 석탄발전소(영흥화력 5호기)의 준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탄 유형별로는 유연탄이 0.8%, 무연탄이 2.7%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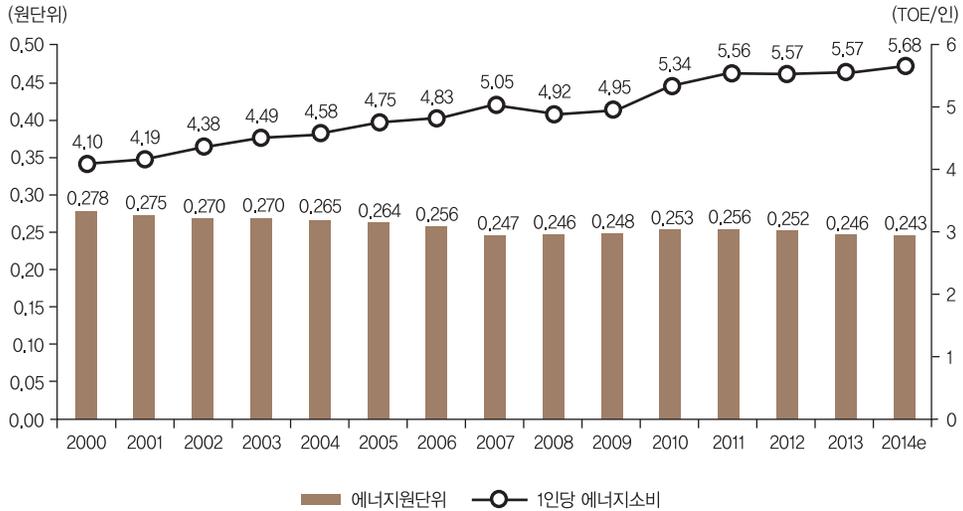
석유수요는 난방용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송용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지난해 보다 0.9% 증가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수송용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0.9% 증가하고, 산업부문

[그림 2] 경제성장률 및 1차에너지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3] 에너지원단위 및 1인당 소비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서는 납사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동 부문 총 석유수요는 1.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가정·상업·공공부문 석유수요는 고유가로 인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되어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3.1% 감소할 전망이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시현해 온 천연가스 수요는 금년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지난해보다 2.5%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케이블 문제로 인한 원전 발전량 감소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석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는 비교적 크게(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7.1% 증가하고, 가정·상업·공공부문 수요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요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4.2% 증가하여 에너지소비를 주도할 전망이며,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가정용 및 상업용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각각 2.5%, 1.8%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케이블 문제로 가동이 정지되었던 일부 원자력 발전설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금년 초 재가동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크게(12.9%)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의 2014년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라 석유 및 석탄 비중은 하락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 비중은 상승할 전망이다. 석유의 비중은 2002년에 50%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 38.1%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37.8%, 2014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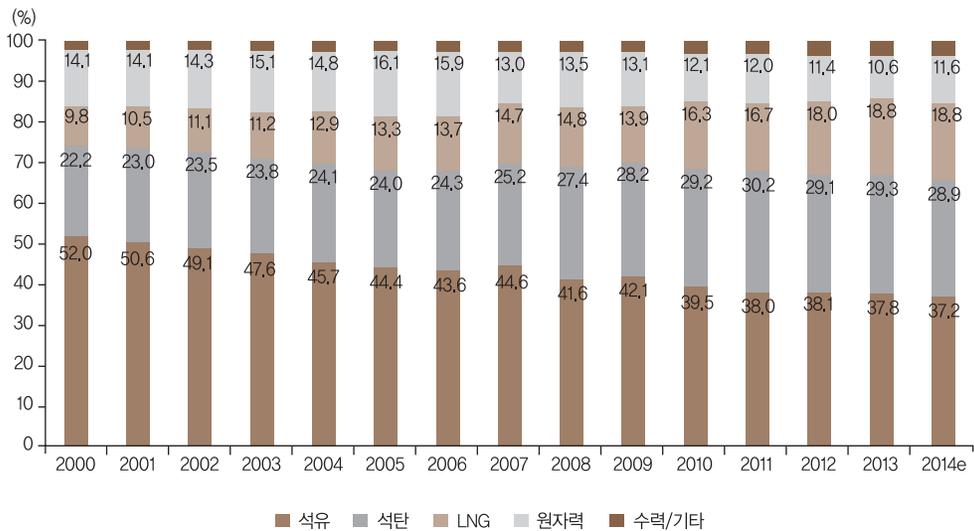


〈표 4〉 1차에너지 소비 추이 및 전망

구분	2013				연간	2014e		
	1/4p	2/4p	3/4p	4/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석탄 (백만톤)	32,7 (0,2)	30,4 (3,6)	33,0 (0,5)	33,8 (1,4)	129,9 (1,4)	64,0 (1,5)	67,1 (0,4)	131,1 (0,9)
석유 (백만bbl)	205,3 (-1,9)	201,2 (0,0)	204,8 (0,3)	213,3 (0,1)	824,6 (-0,4)	408,9 (0,6)	423,1 (1,2)	832,0 (0,9)
LNG (백만톤)	12,7 (-0,4)	8,7 (10,1)	7,6 (12,5)	11,4 (2,4)	40,3 (4,8)	22,1 (3,2)	19,2 (1,6)	41,3 (2,5)
수력 (TWh)	1,7 (39,8)	2,2 (16,7)	2,7 (6,9)	2,2 (10,3)	8,8 (15,5)	3,4 (-13,1)	4,9 (0,7)	8,4 (-5,4)
원자력 (TWh)	37,0 (-1,7)	31,1 (-14,5)	35,2 (-12,6)	36,6 (1,7)	140,0 (-6,9)	76,7 (12,5)	81,3 (13,3)	158,1 (12,9)
기타 (백만TOE)	1,9 (-2,7)	1,9 (-1,6)	1,9 (-2,9)	2,0 (-3,8)	7,8 (-2,8)	4,1 (5,2)	4,1 (4,6)	8,2 (4,9)
1차에너지 (백만TOE)	73,6 (-0,8)	65,3 (0,8)	66,9 (0,3)	73,7 (1,0)	279,5 (0,3)	142,5 (2,6)	143,9 (2,4)	286,5 (2,5)

주: 1)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4] 에너지원별 비중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5〉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및 전망

구분	2013					2014e		
	1/4p	2/4p	3/4p	4/4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산업 (백만TOE)	32.2 (1.2)	31.1 (-1.3)	32.4 (1.5)	33.6 (1.5)	129.3 (0.7)	65.5 (3.5)	67.3 (2.0)	132.8 (2.7)
수송 (백만TOE)	8.8 (-1.3)	9.3 (0.9)	9.5 (-1.0)	9.4 (0.2)	37.0 (-0.3)	18.2 (0.4)	19.3 (2.1)	37.5 (1.3)
가·상·공 (백만TOE)	15.2 (1.1)	8.9 (8.4)	7.6 (2.3)	11.7 (-2.2)	43.4 (1.8)	24.5 (1.2)	19.6 (1.7)	44.0 (1.4)
합계 (백만TOE)	56.2 (0.8)	49.4 (0.8)	49.4 (1.2)	54.7 (0.4)	209.7 (0.8)	108.2 (2.4)	106.2 (2.0)	214.4 (2.2)
도시가스 (십억)	9.5 (9.6)	5.2 (16.1)	3.9 (8.3)	6.9 (-0.5)	25.6 (7.7)	15.3 (3.9)	11.4 (4.9)	26.7 (4.3)
석유 (백만bbl)	198.4 (-0.4)	194.7 (1.0)	198.1 (0.1)	206.9 (0.2)	798.1 (0.2)	396.7 (0.9)	410.0 (1.2)	806.7 (1.1)
전력 (TWh)	125.0 (0.2)	113.8 (2.1)	118.6 (2.3)	117.9 (3.1)	475.4 (1.9)	246.2 (3.1)	244.5 (3.3)	490.7 (3.2)
석탄 (백만톤)	11.9 (-0.6)	11.1 (-5.1)	12.2 (3.2)	12.9 (0.0)	48.1 (-0.6)	23.9 (3.9)	25.2 (0.5)	49.1 (2.1)
열·기타 (백만TOE)	2.5 (-2.1)	1.9 (-0.6)	1.8 (-3.9)	2.4 (-3.3)	8.7 (-2.4)	4.6 (3.5)	4.3 (3.5)	9.0 (3.5)

주: 1)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37.2%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탄의 비중은 산업용 원료탄 소비와 발전용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2001년 23.1%에서 2011년 30.3%까지 확대되었으나,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석탄 발전설비 증설이 없고 산업용 수요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3년에 29.3%, 2014년에 28.9%로 낮아질 전망이다.

발전용 및 도시가스 제조용 수요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천연가스의 비중은 2012년에는 18.0%를 차지하였으며, 발전용 수요가 급증한 2013년에 18.8%로

상승하고, 2014년에도 이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2005년 16.0%를 기록한 이후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락세를 지속하였왔다. 특히, 2013년에는 설비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하락으로 비중이 10.6%로 하락하나, 2014년에는 11.6%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 부문별 에너지수요

2014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경기회복으로 지난해보



다 2.2%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부문은 산업활동 증가로 에너지수요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력(4.6%)과 도시가스(10.1%)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다. 과거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해오던 납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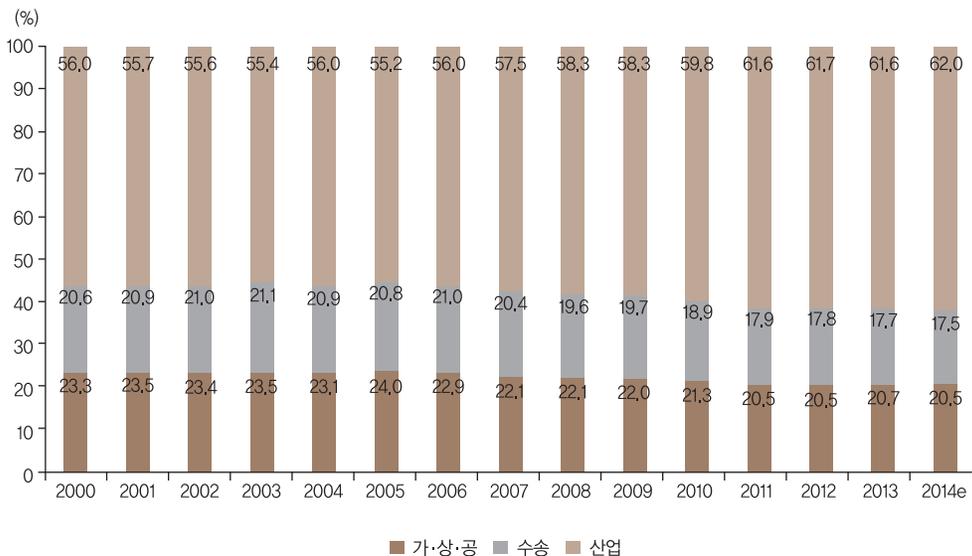
수송부문은 경기회복, 국내외 여행수요의 증가,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다 1.3% 증가할 전망이다. 휘발유 및 경유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LPG 수요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수요는 도시가스(2.1%), 전력(2.1%), 열에너지(0.7%), 무연탄(1.1%) 등은 증가하는 반면, 석유의 경우(-3.1%)에는 감소할 전망이다.

최종에너지의 부문별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비중은 2005년까지 55%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 61.6%, 2014년에 62.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부문의 비중 증가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조립금속업의 높은 성장세에 기인한다.

수송부문 소비 점유율은 2006년 21.0%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 17.9%로 낮아졌으며, 2014년에도 17.5%로 하락할 전망이다. 수송부문의 소비 점유율 하락은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증가속도가 타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결과이다.

[그림 5]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년 이후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정·산업·공공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2년에 20.5%에 이르렀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난방 및 냉방용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은 가정·산업·공공부문은 동계 및 하계 기온 변동에 따라 소비 점유율이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다.

4. 전망의 특징 및 시사점

가. 2014년 에너지수요 전망의 특징

1) 전력수요가 총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

금년 전력수요 증가율(3.2%)은 경제성장률(3.7%)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여전히 산업용 수요는 4.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소비는 2010년에 10.1%, 2011년에 4.8%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로 2012년에 2.5% 증가하고 2013년에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력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수준, 전력 다소비업종의 생산호조 지속, 전기기기의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금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 전력수요가 증가(4.2%)할 전망이다.

2) 산업부문이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하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

금년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76%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여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

며, 동 부문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원은 도시가스과 전력이다. 그러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세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3)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개선되나, 1인당 에너지소비는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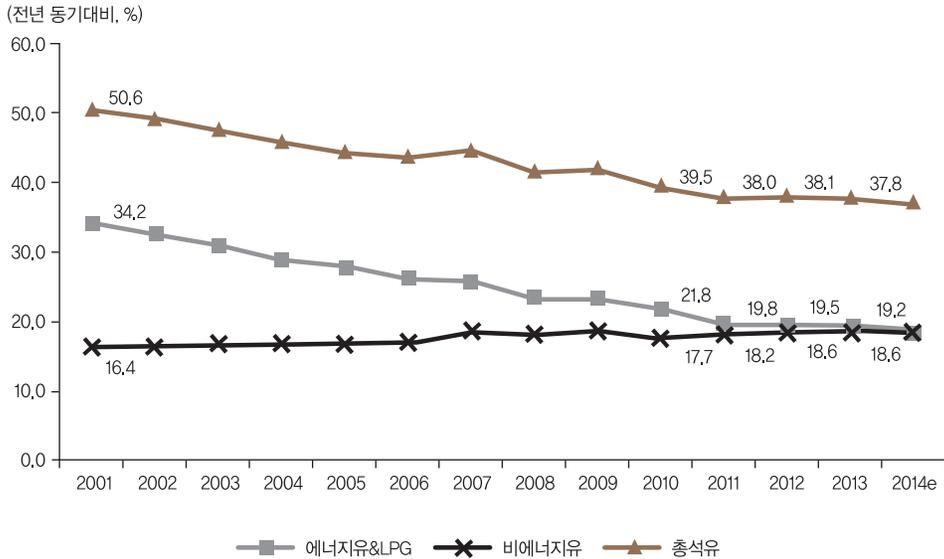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백만 원)는 다소 개선되나, 1인당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5.73 TOE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2011년 기준 OECD 평균 4.29, 일본 3.61, 미국 7.03). 소득이 증가하면서 각종 전기·전자기기, 냉방, 난방, 자동차 등을 소비하기 위한 에너지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과정에서 에너지투입이 증가하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원자력 비중의 상승, 석유비중 하락

케이블 문제로 인한 일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가동정지로 지난해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이 원전들이 재가동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12.9%)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석유의 1차에너지 비중은 2010년에 4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는 38.2%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 37.8%, 2014년에는 37.2%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용 비에너지유(납사, 아스팔트 등)를 제외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의 1차에너지 비중은 2012년에 19.5%에서 2013년에 19.2%, 2014



[그림 6] 석유 의존도 추이 및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년에 18.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에너지유를 제외한 석유의 비중은 LNG 비중(1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의 석유 의존도 하락은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유가 상승으로 수송용 연료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발전용 석유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에서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은 급등한 반면 전기요금은 실질가격에 큰 변화가 없어 전력으로 전환되는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급증세 지속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2013년에 10.4%, 2014년

에 7.1% 증가하여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국제 원유가가 \$100/bbl 이상을 지속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도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산업체의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가스 석유 등의 연료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정책적 시사점

1) 합리적 에너지가격 체계 구축

전기요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에너지 세제를 개선하여 전기-비전기간의 소비왜곡을 시정



해야 한다. 금년에도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한 수요 증가 유발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료비 상승 등에 의해 발생된 원가 미달분 등 가격인상 요인을 요금에 반영해야 하며, 에너지 세제를 개선하여 전기와 비전기간의 소비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18원/kg이 부과되고, 등유 및 프로판의 세금이 30% 감세됨에 따라 가격왜곡이 다소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대책 지속 추진 필요

금년에는 전력수요가 3.2% 증가하지만 발전설비가 약 10% 증설되어 전력수급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원전의 가동 지연, 이상기후, 발전설비 불시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전력공급 비상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 준공이 예정되어 있던 신월성 2호기(100만 kW)와 신고리 3호기(140만 kW)가 2014년에도 가동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관리정책(피크전력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동절기 LNG 수급 상황 점검

동계 한파 발생 시에는 발전용과 도시가스용 LNG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게 되므로 동계 LNG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은 침두부하용 LNG 수요 급증을 유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LNG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에너지수요전망, 2013.12
- _____, 국제 석유시황과 유가 분석, 2013.12
- _____, 에너지통계월보, 2014.2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3.11